

中企인대회 5대그룹 총수 참여, 대통령실서 화합 이룬다

오는 23일 중소기업인대회 예정
내수 활성화 등 경제회복 방침
“현 정부 친기업적 행보에 박수
현안 해결, 대·중기 상생 기대”

올해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도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해 대·중소기업 화합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사가 열린다. 날짜는 23일이 유력하다.

10일 중소기업계 및 재계에 따르면 23일 예정된 중소기업인대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들 5대 그룹 총수는 지난해 5월 25일 열린 33회 중소기업인대회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핸드프린팅 등을 하며 대·중소기업간 공정과 상생을 다짐한 바 있다.

매년 5월 셋째주는 법정 행사인 ‘중소기업주간’이다.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 등을



지난해 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인 후보원 삼흥열처리 대표, 구광모 LG 회장,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정현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중기중앙회

포상하고 격려하는 중소기업인대회도 중소기업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지난해의 경우 윤 정부 출범 첫 해와 중소기업중앙회 설립 60주년이 맞물리면서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렸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기 전인 청와대까지 포함하면 6년만에 대통령과 함께 한 중소기업대회가 됐다. 특히 중소기업계 대표 행사인 중소기업인대회에 5대 그룹 총수가 참석한 것은 지난해

가 처음이었다.

이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선 관련 행사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14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방명록에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들시다’라고 적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열릴 수 있도록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계 복수의 관계자는 “현 정부가 친기업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관련 행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현안 해결에 정부가 앞장서고, 특히 해묵은 과제인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빨리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소기업주간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꾸라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수 활성화 등에 방점

이 맞춰질 전망이다.

2년 연속 대통령실에서 열릴 올해 중소기업인대회도 유공자 포상 뿐만 아니라 내수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미래비전 선포 등의 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주간 행사 기간인 오는 17일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금천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민생활력 온도 플러스 5℃는 투자, 소비, 수출, 고용 등의 분야에서 5% 성장을 이루자는 캠페인이다.

중기중앙회는 자체적으로 임직원들의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독려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중소기업계가 내수 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중소기업주간에는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대토론회(15일)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 무엇이 필요한가’ 토론회(16일)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토론회(1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현황 및 과제 토론회(18일) ▲아름다운 중소기업 나눔콘서트(21일) 등의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前 정부 4대강 보 해체, 과학적 결정 아냐”

한화진 환경장관, 취임 1주년 간담회
“주민들에게 훌륭한 물 저장시설
부유물질 등 비교뎀 수질 좋아져”

“환경, 이분법적 아닌 균형 이뤄야
용산 어린이공원, 위해성 없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환경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보를 해체하거나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전 정부의 결정은 과학에 기반을 둔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면서, 과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지난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첫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년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그동안 논쟁에 갇혀 해결하지 못했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이슈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제가 취임 이후 (4대강 사업이) 다목적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 보 같은 경우는 보를 보답에 활용하겠다. 과학적으로 활용하겠다. 주민 동의 없는 보 해체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면서 “4대강 보라는 물그릇은 지역 주민들한테는 훌륭한 물 공급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보 해체 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과학 기술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하천의 어떤 수질 기준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범

그러면서 “위해성 평가는 방문객의 경우 ‘하루 9시간씩, 주 3회, 25년간’을 가정하고, 작업자의 경우는 ‘하루 9시간 근무, 주 5회, 25년간’으로 가정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1년 한국환경공단과 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평가에서 석유계 총탄화수소나 비소 등이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과 어린이시설 등) 오염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발표해 안정성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 환경부와 국토부는 지난 7일 최근 6개월간 3차례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안전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기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급여 등에 사용되는 사업자 분담금을 23개사 중 19개사가 납부했고, 옥시 등 4개사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서 오는 15일까지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기습기살균제와 원료물질 사업자 등 23개사에 분담금 1250억 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기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미납부 시 국제 체납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도록 돼 있다.

한 장관은 환경의 사각지대 부분도 더 꼼꼼하고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가뭄으로 제한 급수를 걱정하는 도서 지역에 안정적 물 공급 ▲알마 전 기업들과 협약식을 체결했던 저소득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급 지원 사업 등을 언급하며 “환경정책의 혜택이 충분히 닿지 않는 지역과, 환경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보건안전대책 등 따뜻한 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3월 경상수지 2.7억달러 ‘흑자전환’

한은, 1년전 보다 65억달러 감소
상품·서비스수지 30.3억달러 적자

지난 3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억 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지만, 해외 배당소득 등이 늘며 석달 만에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수출부진이 이어지며 상품수지는 11억 3000만달러, 해외 여행이 늘어나며 서비스수지는 19억달러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2억 7000만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65억달러 감소한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국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등 4가지로 나뉘며, 한나라의 기초체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적자를 기록했지만, 본원소득수지가 흑자를 기록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었다”

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가 늘고, 현지법인으로도 많이 나가 있어 (본원소득수지의 경우)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익금불산입제도로 본원소득수지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 등을 중심으로 36억 5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본원소득수지는 급료 및 임금수지와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되는데,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 체류하면서 수취한 임금과 국내에 고용된 외국인에게 지급한 임금의 차이,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여 얻은 이자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신 경제통계국장은 “투자소득수지 중 배당소득수지가 1년전과 비교해 28억 6000만달러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배당수익의 뿐만 아니라 법인세 계정 등으로 인한 혜택으로 연간전체 수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